



공예 체험하며 '인증샷'...보물 찾아가며 '스탬프'

올 첫 예술의 거리 문화난장(매주 금요일)에 가보니

4대째 이어온 공방 '무안요'서 분청사기 체험 골동품 가게 '고전방'서 조선시대 생활상 탐험

익숙한 통기타 선율, 감미로운 팝송, 마음을 울리는 해금 연주가 광주 시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에 울려 퍼졌다. 시민들은 예술의 거리에 있는 갤러리나 공방에 앉아 점토를 주무르거나 짚품을 꼬아가며 민예품을 만들었다. 외국인들은 난생처음 접하는 민화가 신기했던지 붓을 움켜질 때마다 갑탄사를 내뿜었다. 지도를 들고 예술의 거리에 있는 보물을 찾아다니며 도장을 찍는 이들의 발걸음도 분주했다.

지난 27일 오후 예술잔치가 벌어진 예술의 거리를 찾았다. 포근한 봄바람과 따사로운 봄볕이 예술의 거리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이날 예술의 거리에서는 매주 금요일 계속되는 문화예술축제 '나비야 공동가자'가 처음으로 열렸다. 이 사업은 (사)한국학중앙연구원과 광주 동구문화원이 주관한다.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들 들으며 분부석을 찾았다. 예술의 거리 보물찾기 스탬프 릴리를 위해 '공동유람 보물찾기 지도'를 하나 집어들었다. '공동유람'은 예술의 거리에 있는

25곳의 갤러리나 공방 등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을 찾아 설명을 듣고 도장을 찍는 산책 프로그램이다.

예술의 거리 중앙초등학교 사거리 에 있는 '무안요'를 먼저 찾았다. 무안요는 4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대한민국의예명장 김옥수 선생이 운영하는 공방이다. 김 선생은 이날 체험 프로그램을 찾은 10여 명의 시민들에게 분청사기와 흙을 만지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무안요의 보물은 황금 분청사기였다. 김 선생은 국내 최초로 황금 분청사기 유약을 개발했다.

골동품 도자기와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판매하는 '고전방'의 보물은 '조선시대 청화'였다. 황해도 해주에서 제작된 석류가 그려진 쌀 항아리는 조상들의 생활상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이었다. 주인장은 "석류 알이 알알이 들어찬 모습은 다산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가수 이용호씨가 손수 만든 소박한 돌담을 지나 '중앙골동품'에 들어섰다. 예술의 거리에서 35년 동안 생활



매주 금요일 예술의 거리에서 열리는 문화예술축제 '나비야 공동가자'에서는 다양한 공예를 체험하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스탬프 투어 10곳 이상 도장 받으면 예술쿠폰 차량 통행에 퍼포먼스 끊기고 시민 불편 겪기도

한 이곳 대표 용정숙(여·63)씨는 100년이 넘었다는 '거북이 빗장'을 소개하며 우리 것의 아름다움에 대해 설명했다.

'백년갤러리'에서는 종이로 만든 양중맞은 신발이 눈에 띄었다. 이곳 주인장은 신발 옆에 '굵은 손마디 외할머니 기념품이 된 단단히 아양신발입니다. 그때 아양을 떨던 단단이는 지금은 누구의 할머니일까요?'라고 적어두었다.

동부경찰서 쪽으로 내려오자 공연과 함께 거리에서 짚품을 꼬고, 한지에 색을 칠하는 사람들이 분주했다. 송영학 작가는 후배들과 함께 대형 걸개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외제 허백련 선생과 정율성의 만남을 재현한 퍼포먼스와 선조에게 고문당하는 김덕령 장군을 재현한 공연도 시민들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된장국으로 유명한 식당 '밀락원'에는 지역 예술가들이 술을 마시고 술값 대신 그려준 부채들이 빼곡하게 장식돼 있었고, '진다리봇'에서는 1985년부터 4대째 제작하고 있는 대

형 '백마총 북'이 내걸려 있었다.

원불교 교구당에서는 매일 아침저녁으로 울리는 종을 찾을 수 있었다. 이 종은 매일 새벽 5시에 33번, 밤 10시에 28번 울린다.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민들에게 전각에 대해 설명하고 있던 '창안당' 주인 김재섭(75)씨는 15살 때부터 전각을 한 사연을 설명하며 추억에 잠기기도 했다. 그렇게 10곳에서 도장을 받고 분부석에서 4000원 상당의 예술쿠폰을 받았다.

이날 아쉬운 점도 있었다. 예술의 거리를 오가는 차량으로 인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퍼포먼스 등 공연이 중간에서 끊기고 그림을 그리던 작가들이 장소를 옮겨야만 했다. 또 몇몇 상점은 문이 닫혀 있어 스탬프 투어를 하던 시민들이 발걸음을 되돌리기도 했다.

한편 예술의 거리에서는 오는 11월 6일까지 매주 금요일 '나비야 공동가자'를 주제로 예술잔치가 벌어진다. 문의 062-223-0137. /글·사진=김경민기자 kki@

문화예술 청년 일자리 창출

전남문화재단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확대

전남문화예술재단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문화예술분야 일자리 창출 등으로 청년 예술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또 전남 지역 초·중·고교에 예술강사를 파견하는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신규 예술강사 채용도 늘렸다.

청년예술가 육성지원사업은 지난해 시범운영한 신진예술가 지원을 확대·편성해 육성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청년작가 1명을 지원했던 것을 올해는 송환규(영상미디어)·김엽(서양화)·김수지(전통공예)·장운경(전통예술)·이아름(웹툰)작가 5명으로 늘려 창작활동 지

원, 멘토 컨설팅, 워크숍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전문 문화예술기획자 양성과정도 운영한다. 올해는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 2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하며, 이달 말 수행단체 선정 후 4월부터 사업이 진행된다. 지난해 양성과정을 통해 현재 46명의 청년 문화활동가들이 문화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올해 신규 예술강사(38명) 채용을 더 늘렸다.

올해는 연극·영화·무용·만화 등 각 분야의 예술강사 총 300명이 전남 지역 511개교에 파견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木畫

광주여성재단 북카페, 4월 24일까지 최미영 우드버닝전

6일 체험프로그램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이운자) 북카페는 지역여성 작가들의 솜씨를 보고 배울 수 있는 작은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번 작은 전시는 최미영 작가의 우드버닝(woodburning)이다. 지역에서 생소한 우드버닝은 특수 제작된 인두를 사용해서 나무에 그림을 그리는 수공예다. 전시 기간은 오는 4월 24일까지다.

전시 기간 중에는 우드버닝을 통해 생활소품을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4월 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리며 15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신청서는 4월 2일까지 홈페이지 및 전화로 접수받는다.

홈페이지 www.gjwf.or.kr. 문의 062-670-0534. /김미기기자 mekim@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게임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시공과정: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시공, 4. 옥상시공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물디자인으로 바뀌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델 밸런스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주요IPALG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 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